



Analyst 권순우 · 02-3773-8882 · soonwoo@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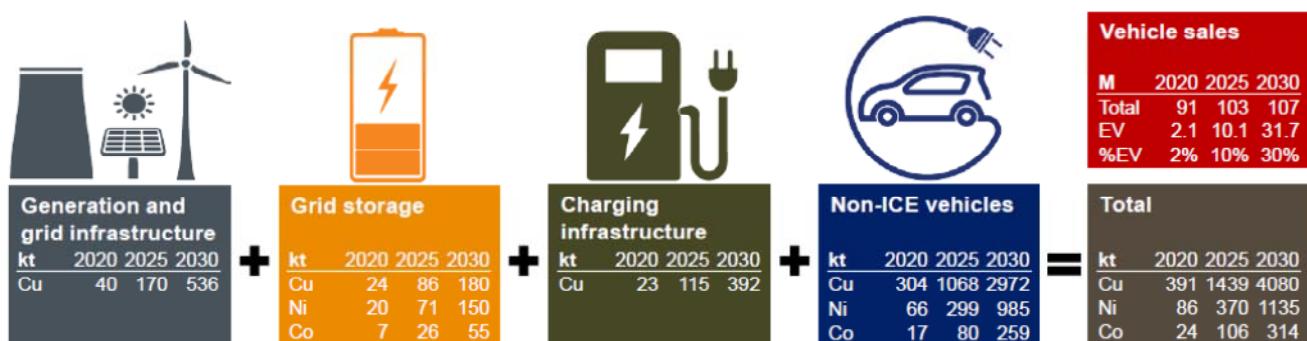
Issue Comment

- ✓ 글렌코어 전기차 산업 확대에 따른 금속수요 전망 발표
- ✓ 높은 수준의 추가 수요 대응을 위해 동/코발트 광산 재가동
- ✓ 전기차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부품사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소재까지 관심은 지속될 필요

글렌코어(Glencore) 전기차 산업 확대에 따른 금속수요 전망 발표

- 글렌코어(Glencore)는 최근 투자설명회에서 전기차 산업 확대에 따른 금속수요 전망에 대해 발표. 전기차 증가와 이로 인한 발전 및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구리, 니켈, 코발트의 추가 소요량을 예상
- 2020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로 가정했을 때, 현재 대비 동 39만톤, 니켈 8.5만톤, 코발트 2.4만톤의 추가 수요 발생
- 장기적으로 2030년 점유율을 32%로 가정하면, 추가 수요는 동 410만톤, 니켈 110만톤, 코발트 31.4만톤으로 전망
- 추가로 예상되는 수요는 16년 공급량과 비교하면 각각 동 18%, 니켈 56%, 코발트 400%로 높은 수준
- 반면 리튬은 수요 전망에서 제외. 상대적으로 부존량이 풍부하고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부족 가능성은 제한적인 깊닭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하락으로 폐쇄하였던 Katanga 동/코발트 광산 재가동 발표. 특히 코발트는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1.1만톤에서 19년에는 3.4만톤 증산 계획. 동 역시 18년 15만톤, 19년에는 30만톤으로 증산 계획 발표
- 글렌코어의 공급 확대 계획으로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주요 광물의 부족으로 인한 전기차 생산차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판단
- 다만 생산확대에도 불구하고, 추가수요를 만족시킬 정도의 충분한 공급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소재의 가격 상승은 이어질 전망. 전기차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부품사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소재까지 관심은 지속될 필요

전기차 산업 확대에 따른 금속수요 전망 – “The world is changing; electric vehicles will be a disruptive force”



자료: Glencore, SK증권

주: 관련 자료 <https://goo.gl/oGuEJv> 참고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